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6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도, 디지털 기반 씨감자 생육모델 개발 착수-6면(2026.04.27.)	농산물원종장	농업인신문
○	달콤한 감귤꽃 향기 가득... “주말에 서귀포 갈래” -5면(2026.04.29.)	기술지원조정과	서귀포신문
○	제주 녹차 확산 위해 ‘차나무 삽수’ 분양-4면	농산물원종장	제주매일
○	[기고] 5월 귤꽃계절의 제철 매력 속으로 -14면(고희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기고] 5월, 귤꽃계절의 제철 매력 속으로 -14면(고희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주간농업농촌소식-6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가족과 함께하는 ‘귤꽃계절 소풍’ 행사 -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제주 4월 ‘비 폭탄·고온’ ...이상기후 신호탄-4면	-	제민일보
○	제주시-농협도매부, 농산물 가격안정 ‘한마음 한뜻’ -9면	-	제주매일
○	마늘종 뽑는 외국인노동자들-4면	-	한라일보

(농업인신문: 2026년 4월 27일)

○ 제주도, 디지털 기반 씨감자 생육모델 개발 착수-6면

제주도, 디지털 기반 씨감자 생육모델 개발 착수

제주농업기술원이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을 자동제어 기반 스마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씨감자 생육관리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수경재배 씨감자는 일반 씨감자에 견줘 생산성이 약 20% 높고, 생육 안정성과 수량 확보가 우수하다. 이 같은 장점으로 매년 약 1900여 농가가 신청할 만큼 선호도가 높다.

종자 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조성한 첨단온실과 복합자동제어 설비가 디지털 기반 씨감자 생육모델 개발에 활용된다.

개발 모델은 △생육단계별 관리기준 △양액·환경 관리운영기준 △자동제어 적용기준으로 구성된다. 기온, 일사량, 습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양액 공급 시간과 휴지 시간을

자동조절하는 디지털 제어를 적용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생육 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지난 3월 모델 초안 설계를 완료했으며, 현재 봄 작기 현장 실증을 진행 중이다. 오는 9~10월 가을 작기 보완과정을 거쳐 12월에 최종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시설 내 외부 환경 데이터와 씨감자 생육 데이터를 축적·분석해 모델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4. 27.

백종수 bjs00@ 농업인신문 6

(서귀포신문: 2026년 4월 29일)

○ 달콤한 감귤꽃 향기 가득... “주말에 서귀포 갈래” -5면

달콤한 감귤꽃 향기 가득...“주말에 서귀포 갈래”

2026 귤꽃계절 특별한 소풍

노지 감귤꽃, 5월 7일쯤 만개
감귤꽃 주제 체험 관광 축제
서귀포농기센터서 행사 열려

제주 서귀포시에서 초록색 감귤 나무의 흰 꽃물결과 달콤한 향기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는 '봄 소풍'이 열린다. 감귤의 과실뿐만 아니라 잠깐 피었다 지는 흰 감귤 꽃을 체험 관광 콘텐츠로 삼고 있어 지역 관광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작년보다 일주일 일찍 만개 예측
제주 노지 감귤꽃은 오는 5월 7일 활짝 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제주 노지 감귤꽃은 오는 5월 3일 서귀포시 지역을 시작으로 중산간, 제주시 지역 차례로 피기 지난해보다 일주일 일찍 활짝 필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 노지 감귤 주산지의 싹 나는 감귤꽃 시기(발아기)와 그간의 꽃 핀 시기(만개기), 4월 기상 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일 정도 빠르고, 평년(2016~2025년, 과거 1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래는 3월 기온이 낮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4월 평균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보돼 예상 만개 시기도 당겨졌다.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만개 시기는 서귀포 지역은 5월 3일~10일, 제주시

지역은 5월 8일~13일 사이다. 지역별로는 △5월 3일 하원 △5월 4일 신호 △5월 6일 신흥 △5월 8일 덕수·무릉·토산·용흥(애월읍) △5월 9일 하례·신촌 △5월 10일 금악·성산 △5월 12일 아라 △5월 13일 덕천 순이다. 서귀포시 해안에서 시작해 중산간지대, 제주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꽃꽂이를 보기 좋은 시기는 5월 초~중순으로 예측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강석범 센터장은 “노지 감귤 꽃 피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이른 5월 7일 정도로 예측된 만큼 꽃 피는 시기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귤꽃, 체험형 관광 콘텐츠 '기대'
5월, 달콤한 감귤꽃 향기가 퍼지는

봄에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소풍이 열린다.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2026 귤꽃계절 소풍'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2026 제주감귤박람회'를 홍보하고, 감귤꽃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예약자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제주국제감귤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고, 참가비는 5000원으로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감귤꽃 향기를 느끼며 3km 코스(약 1시간 코스)를 걷는 '귤

꽃계절 길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접수순으로 100명씩 팀을 이뤄 출발한다.

현장에서는 싱싱한 하귤을 이용한 수제청을 만드는 '하귤청 담기'와 찹쌀 전에 귤꽃을 얹은 '감귤꽃 화전 만들기', 말린 감귤꽃을 우려낸 '귤꽃차 시음', 소원을 담은 소원지를 감귤 나무에 달아보는 '소원나무 꾸미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문삼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장은 “감귤의 시작인 하얀 감귤 꽃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많은 분과 나누고자 한다”며 “제주의 봄과 감귤꽃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관봉 기자



4. 29. 서귀포신문 5

서귀포시 지역에서 감귤나무에 흰 감귤꽃이 가득 퍼 달콤한 향기가 퍼지고 있다.

(제주매일: 2026년 5월 6일)

○ 제주 녹차 확산 위해 ‘차나무 삽수’ 분양-4면

제주 녹차 확산 위해 ‘차나무 삽수’ 분양

국내외 10개 품종 6~15일 신청 접수...7월 중 공급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도내 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루녹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나무 삽수’를 분양한다.

특히 기존의 단순 일괄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 단계에서 농가별 재배 목적과 활용 계획을 반영한 맞춤형 공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며 농산물원총장 방문(에월읍 월각로 563-20), 팩스(064-760-7249), 이메일(jwon2382@korea.kr)로 접수할 수 있다.

공급 품종은 국내 육성 품종 급설, 비취설, 참녹, 도입 품종 사에미도리, 메이료구, 료오후, 오구미도리, 아사노까, 대차, 청심오룡 등 10품종으로 농가(법인)별 최대 2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품종과 관계없이 1kg 당 3000원이다.

농가·법인별 최종 공급 물량은 6월 중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삽수는 7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삽수는 삽목을 하기 위해 모체로부터 분리한 어린 가지나 뿌리다. 삽목



제주 녹차가 영글고 있다.

은 식물 영양기관의 일부를 모체로부터 분리시켜 흙 또는 모래에 꽂아 발근·발

아시켜 독립의 식물체로

5.6
제주매일 4

(제주매일: 2026년 5월 6일)

○ [기고] 5월, 귤꽃계절의 제철 매력 속으로-14면

[기고] 5월, 귤꽃계절의 제철 매력 속으로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지도사



고희열

제주에서 감귤을 빼고 제주를 논하기는 어렵다.

제주인의 삶과 문화, 경제와 사회, 모든 곳에 감귤이 스며있다. 감귤은 600여년 전부터 제주를 대표했고 산업화에 진입한 그 시절부터는 제주를 살리고 키워낸 작물이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과거 척박했던 섬의 선택이었던 감귤은 생산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다 변화의 요구에 따라 최근에는 품질을 올리고 산업 구조를 개선하면서 1조원대 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산업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감귤의 역할과 경쟁력을 키우고자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고자 산학연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우르는 제주감귤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

위원회에서는 5월 감귤꽃을 테마로 귤꽃축제인 '가족과 함께하는 귤꽃계절 소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1월에 예정인 '2026년 제주 감귤박람회'를 사전 홍보하고 귤꽃계절의 제철 매력과 가치를 나누고 즐기기자 마련된 자리이다.

'귤꽃계절 소풍'은 오는 9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상호동 과원돌담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귤꽃 향기가 넘나드는 과원돌담길을 걸으며 제주와 제주감귤을 품는 시간, 5월에만 만나는 특별한 감귤인 하귤을 맛보고 청으로 담아 보는 순간, 귤꽃 화전과 귤꽃차를 즐겨보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제주감귤박람회 누리집 (<https://www.jicexpo.com>)에서 사전 예약으로 풍성한 행사를 만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귤꽃계절의 제철 매력을 즐기며 제주자연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5월 귤꽃을 시작으로 8월 풋귤, 11월 제주감귤박람회까지 감귤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며 감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5.6.
제주매일 14

(삼다일보: 2026년 5월 6일)

○ [기고] 5월, 귤꽃계절의 제철 매력 속으로-14면

5월, 귤꽃계절의 제철 매력 속으로

제주에서 감귤을 빼고 제주를 논하기는 어렵다. 제주인의 삶과 문화, 경제와 사회, 모든 곳곳에 스며있다. 감귤은 600여 년 전부터 제주를 대표했고, 산업화에 진입한 그 시절부터는 제주를 살리고 키워낸 작물이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과거 척박했던 섬의 선택이었던 감귤은 생산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다 변화의 요구에 따라 최근에는 품질을 올리고 산업 구조를 개선하면서 1조원대 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산업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감귤의 역할과 경쟁력을 키우고자,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고자, 산학연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우르는 제주감귤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새)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5월 감귤꽃을 테마로 귤꽃축제, '가족과 함께하는 귤꽃계절 소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1월에 예정인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를 사전 홍보하고 귤꽃계절의 제철 매력과 가치를 나누고 즐기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고희열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귤꽃계절 소풍'은 오는 5월 9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상호동 과원돌담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귤꽃 향기가 넘나드는 과원돌담길을 걸으며 제주와 제주감귤을 품는 시간, 5월에만 만나는 특별한 감귤인 하귤을 맛보고 청으로 담아 보는 순간, 귤꽃 화전과 귤꽃차를 즐겨보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제주감귤박람회 누리집(www.jicexpo.com)에서 사전 예약으로 풍성한 행사를 만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귤꽃계절의 제철 매력을 즐기며, 제주자연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5월 귤꽃을 시작으로 8월 풋귤, 11월 제주감귤박람회까지 감귤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며 감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5. 6.}삼다일보 14

(제주매일: 2026년 5월 6일)

○ 주간농업농촌소식-6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6-16호(2026. 5. 1.)

농업현장 중심 실용·혁신 농업기술 개발·보급

병해충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합시다

■ 만감류

- 온도관리: (백화기~만개기) 낮 최고 온도 25℃ 이하 유지
- 물관리: (개화기~만개기) 7일 간격 15~20톤/10a 관수
- 병해충관리: 총채벌레, 진딧물, 잎말이나방 등 예찰 후 초기 방제
- ※ 백화기 구리제+기계유유제(120배) 살포: 누른무늬병 예방 및 굴응애 방제

■ 키위

- 신초관리: 결과지 충실도에 맞춰 불필요한 어린순 제거
- 꽃봉오리 숙기: 결과지 10cm 내외일 때 결과지 당 꽃봉오리 3~4개 남김
- 인공수분: 개화일로부터 2~3일 이내에 이슬이 마른 후 오전 중에 작업
- ※ 꽃가루 발아율 검사 결과에 따라 증량제 희석배율 조정

■ 마늘

- 잦은 강우는 잎집썩음병, 무름병 등 발생 확산의 주요 요인
- 토양 과습 방지, 포장 내 발병 개체 즉시 제거, 발생 초기 적용약제 살포

■ 초당옥수수

- 병해충 관리: 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
- 나방류 유충 발생 확인되면 해뜨기 전 적용약제 줄기와 잎에 고르게 살포

■ 단호박

- 터널비닐 제거하며 건실한 아들줄기 2~3본을 양쪽으로 유인하여 방임재배
- ※ 제거 전 서서히 환기구멍을 늘려 외부 기온에 적응시킨 후 완전히 제거
- 웃비료: 요소·염화칼리 각 20kg/10a를 식물체와 가까운 고랑에 살포

< 위기를 기회로!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

- 표준시비란?
필지별 토양 양분상태를 분석(토양검정)하여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 결과
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여도 수확량·상품성 차이 없었음
- 마늘 실증사업 현장평가회: 5월 중순, 대정읍 일원(문의: 760-7352)

토양검정서비스
이용 방법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 5. 6. 제주매일 6

(삼다일보: 2026년 5월 6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병해충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합시다

▲만감류
 △온도 관리=(백화기~만개기) 낮 최고 온도 25도 이하 유지
 △물 관리=(개화기~만개기) 7일 간격 15~20t/10a 관수
 △병해충 관리=총채벌레, 진딧물, 잎말이나방 등 예찰 후 초기 방제
 △백화기 구리제+기계유유제(120배) 살포=누른무늬병 예방 및 굴응애 방제
▲키위
 △신초 관리=결과지 충실도에 맞

춰 불필요한 어린순 제거
 △꽃봉오리 숙기=결과지 10cm 내외 일 때 결과지 당 꽃봉오리 3~4개 남김
 △인공수분=개화일로부터 2~3일 이내에 이슬이 마른 후 오전 중에 작업/꽃가루 발아율 검사 결과에 따라 증량제 희석배율 조정
▲마늘
 △젓은 경우는 잎집썩음병, 무름병 등 발생 확산의 주요 요인/토양 과습 방지, 포장 내 발병 개체 즉시 제거, 발생 초기 적용약제 살포

▲초당옥수수
 △병해충 관리=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나방류 유충 발생 확인되면 해뜨기 전 적용약제 줄기와 잎에 고르게 살포
▲단호박
 △터널비닐 제거하며 건실한 아들 줄기 2~3본을 양쪽으로 유인하여 방입재배/제거 전 서서히 환기구멍을 늘려 외부 기온에 적응시킨 후 완전히 제거
 △웃비료=요소·염화칼리 각 20kg/10a를 식물체와 가까운 고랑에 살포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위기를 기회로!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표준시비란?=필지별 토양 양분 상태를 분석(토양검정)하여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여도 수확량·상품성 차이 없었음.



토양검정서비스 이용 방법 5. 6. 삼다일보 13

(삼다일보: 2026년 5월 6일)

○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13면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
△일시=5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남원읍 하례리) 일대
△참여 대상=도민·관광객 등 누구나/300
명 내외/사전예약 필수 △주요 내용=굴꽃
계절길 걷기, 굴꽃 화전 만들기, 굴꽃차 시
음, 소원나무 꾸미기, 하굴청 담기 등 △사
전 예약=제주감굴박람회 누리집([https://
www.jicexpo.com](https://www.jicexpo.com)) △문의=762-3091((사
제주국제감굴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0-7512(농업기술원)

5. 6.
삼다일보 13

(제민일보: 2026년 5월 6일)

○ 제주 4월 ‘비 폭탄·고온’ ...이상기후 신호탄-4면

제주 4월 ‘비 폭탄·고온’...이상기후 신호탄

강수일수 16일 ‘역대 최다’
일조시간 134.3시간 ‘최저’
중순 기온 16.5도 ‘역대 1위’

제주지역 4월 잦은 비와 일조 부족, 중순 이상고온이 겹치며 강수 일수와 일조시간, 중순 평균기온이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4월 제주도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 달 제주도 강수일수는 16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고 일조시간은 134.3시간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중순 평균기온은 16.5도로 역대 1위를 기록하며 이상고온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해6. 평균기온은 평년(14.1도) **제민일보 4** 높은 15.4도로 역대 위

를 기록했다. 기온은 상순부터 중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순 들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한 달 사이 변동폭이 컸다.

강수 특성도 뚜렷했다. 4월 강수량은 201.4mm로 평년보다 많아 역대 8위를 기록했다.

특히 상순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며 강수일수 5.5일로 역대 4위를 기록했고 4일과 9일 두 차례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전체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상순에 쏟아졌다.

이 가운데 9일에는 중국 중부에서 이동한 저기압 영향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발생해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성산 지점에서는 시간당 강수량 26.3mm를 기록하며 극값 순위를 경신했다.

중순에도 제주도 남쪽 해상 저기압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자주 이어지면서 강수일수 6.6일로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젖은 비’가 4월 기후의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비가 잦아지면서 일조시간은 평년보다 62.5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기온도 높은 흐름을 보였다. 4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3.6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지난해보다 1.6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4월 이상고온과 잦은 강수가 동시에 나타나며 한 달 내 기상변화가 매우 컸다”며 “최근 기후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이상기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병관 기자

(제주매일: 2026년 5월 6일)

○ 제주시-농협도매부, 농산물 가격안정 ‘한마음 한뜻’ -9면

제주시-농협도매부, 농산물 가격안정 ‘한마음 한뜻’

조생양과 등 주요 품목 적기 출하 협력 강화
지난 28~29일 이틀간 직거래 9t 판매 성과도

제주시가 최근 가격 하락세인 조생양과를 포함한 지역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 도매부와 손을 맞잡았다.

제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비지와 유통 핵심 부서를 방문하면서 전국 농산물 유통의 ‘컨트롤 타워’인 농협경제제주 농산물 도매부와 면담을 갖고 지역 농산물의 실질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이끌어냈다.

농협 도매부는 전국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물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출하량을 조정하는 유통 전문 부서다. 5,6월의 공급 과잉이 예상될 때 제주매일 9월 10일까지의 공급 과잉이 예상될 때

해 가격 급락을 방어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제주시는 담당 MD와 도매부 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노지감귤과 만감류 출하 시기에 맞춰 △시장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적기 출하 △고품질 물량 위주의 선별적 공급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소포장 재규격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매부 측은 제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 도매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하고 제주시는 이를 유통 정책에 적극 반영해 도매시장 경락 가격을 지지할 계획이다.

한편 방문 기간 중 서서울농협과 송



파농협 등 대형 소비지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조생양과(375망/15kg)를 비롯해 △간마늘(1280봉/1kg) △커라향(384박스/1.2kg, 480박스/2.5kg) △블루베리(1600팩/100g) △자몽(284봉/1.2kg) 등 약 9t의 농산물을 판매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농산물도매부와 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도매시장 가격은 지지하는 동시에 직거래 비중을 확대하는 ‘부트렉 유통 체계’로 농민들이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기봉기자

(한라일보: 2026년 5월 6일)

○ 마늘쫑 뽑는 외국인노동자들-4면



5. 6.
한라일보 4

마늘쫑 뽑는 외국인노동자들 4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의 한 마늘밭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마늘쫑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